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석호원(행정학 박사)
myvirtuoso@gyri.re.kr

시민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김소담(행정학 석사)
sdkim@gyri.re.kr

Contents

- I. 인구이동의 중요성
- II. 고양시 전입 현황과 이유
- III. 고양시 전출 현황과 이유
- IV. 시사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자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소여(所與)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유입과 유출(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감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최근 지방소멸 이슈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관련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17년~2037년)에 의하면 고양시의 2037년 인구수는 약 110만 명으로 2020년(108만) 대비 약 1.9%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양시의 이러한 인구증가는 인구의 양(positive)의 순이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인구수와 인구구성의 함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수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고양시 인구이동 현황과 그 이유를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고양시 인구의 주된 이동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고양시 전·출입 인구의 이동 사유 분석결과 고양시에 전입한 인구의 주된 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출 인구의 주된 이동 사유 역시 주택, 가족, 직업요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 전입 및 전출자의 이동 사유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미만 연령층의 경우 가족과 교육요인이 가장 중요한 전입 및 전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교육요인은 전입보다 전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전출 사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고양시의 교육 환경이 10대 인구의 유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요인으로 최근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의 경우 전출과 전입사유 응답 비중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구조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양시의 오래된 과제 해소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택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통적으로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전입 및 전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전입과 전출 양측에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인구이동의 중요성

GYRI

-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77로 처음 1.0 이하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기준 0.84로 OECD 평균 1.61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0.9% 수준에서 2020년 16.4% 수준으로 5% 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고령화 속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낮은 출생률과 인구의 빠른 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귀결되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초래
 -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단순히 지역 인구수 편차 심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지역의 성장 동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격차와 밀접히 관련
- 상기한 출생률과 높은 고령화 현상 등 자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소여(所與)의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인구의 유입과 유출(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감은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유출은 지역쇠퇴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지역쇠퇴는 인구의 유출을 가속화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지역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원인이 됨
 - 반면 일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인구증가는 도시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도시범죄, 교통혼잡, 주거, 실업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원인이 됨
 -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소멸 역시 이러한 지역별 불균등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문제를 넘어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
 - 이러한 맥락에서 소멸위기 지역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요인 이외에 지역 간 인구구조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사회적 인구변화(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음
 -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동요인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됨
- 인구이동에 의한 지역 간 인구구조의 불균등은 이동 인구의 연령과 밀접히 관련되며, 이동의 이유는 이동자가 속해있는 삶의 주기(life cycle)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음
 - 이동하는 개인이 처한 경제·사회적 특징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 에 이동 유인과 이동지역 역시 연령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연령은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임
 - 한편 가족 관련 가치관, 삶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상황 등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연령규범¹⁾ 역시 변화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인구의 이동 이유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젊은 층의 인구감소와 고령층 인구증가로 인해 인구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전반적 인구구조 변화 하에서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인구구조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 특히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다른 양상으로 분포하게 됨
 - 2020년 기준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0년~ 2037년)에 의하면 고양시 2037년 인구는 약 11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
 - 2010년 이후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양시 순이동인구는 2017년 제외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양시 인구증가는 사회적 인구이동의 결과임을 알 수 있음

1) 연령규범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을 의미

2) 2019년 제시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에서는 2020년 고양시 인구를 약 102만 명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 고양시 인구(102만 명) 대비 2037년 고양시 인구는 약 7.5% 증가함. 그러나 2020년 고양시 실제 인구(108만 명)와 2037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 대비 2037년 고양시 인구는 약 1.9% 증가함. 한편 2021년 현재 고양시에서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창릉, 탄현)과 대규모 개발사업(일산테크노벨리, 방송영상벨리, GTX 건설 등)이 진행되고 있어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향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 고양시 합계 출산율과 순이동인구 수(2010년~2020년) (단위: 명, %)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내이동인구 통계

- 고양시 10세 단위 연령별 인구 비중은 2010년 기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30대, 20대, 10대 순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2020년의 경우 50대, 40대, 20대, 10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구조가 점차 향아리형으로 변화하고 있음

<표 1-1> 고양시 연령별 인구(2010년~202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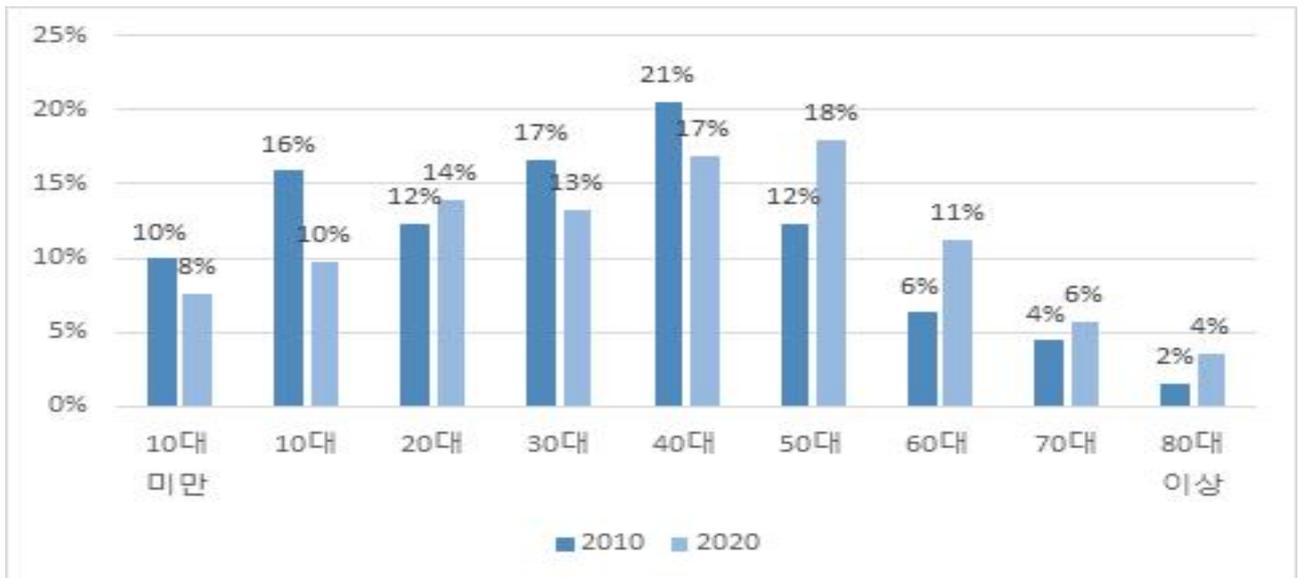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대 미만	94,642	92,963	91,644	91,727	91,676	93,068	92,309	88,882	85,339	84,813	82,122
10대	150,863	146,861	141,455	137,802	132,764	127,178	121,539	117,083	112,537	109,000	105,008
20대	117,443	121,217	124,958	129,878	135,019	140,746	145,198	146,816	147,026	149,680	150,925
30대	157,783	152,631	147,713	146,606	144,065	144,773	143,545	140,246	138,982	141,617	142,781
40대	195,029	197,280	197,784	200,392	200,512	199,230	197,424	193,677	187,263	185,520	182,400
50대	117,439	130,075	139,950	150,579	160,021	168,275	174,535	178,795	184,072	191,123	194,504
60대	59,977	59,472	61,059	64,336	68,955	77,020	83,665	90,411	98,277	108,983	121,324
70대	41,958	44,421	47,555	49,611	51,332	52,907	54,504	56,679	58,605	60,269	61,935
80대 이상	14,981	16,319	17,798	19,640	21,810	24,349	26,965	29,394	32,088	35,346	38,217
계	950,115	961,239	969,916	990,571	1,006,154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1,079,216

<출처>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

- 2010년 대비 2020년 고양시 인구는 50대와 60대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인구구성의 고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2] 고양시 연령별 인구 비중(2010년, 2020년)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

- 인구구조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구구조에 따라 현재 및 미래 지방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역의 인구구조는 사회적 인구증감 요인인 인구이동의 함수이므로 결국 이동 인구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짐을 의미
 - 지방정부의 장기적 도시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구조는 가장 중요한 고려변수로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책 방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동 인구의 이동 이유 분석을 통해 당해 지방정부의 유입요인과 유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쇠퇴 방지 및 인구구조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임

II. 고양시 전입 현황과 이유

GYRI

- 인구의 이동과 이동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찰된 인구이동 결과와 이동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이동 이유를 추정하는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적 추정에 기반한 분석은 인구의 직접적 이동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대표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상기한 간접적 분석방법과 달리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 이동 통계 전입사례 전수자료(770만 건)를 분석하여 연령별 고양시민의 이동 사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함
 - 770만 건의 이동사례 중 고양시 전입 사례를 추출하여 전입 시 기재한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 분석을 통해 고양시 전입 이유를 분석함
 - 고양시 전출 사유 분석의 경우 타지역에 전입한 고양시 전출자를 추적하여 타지역 전입 시 작성한 전입 이유를 고양시 전출 사유로 상정함

□ 고양시 전입자 현황

- 전입신고서 양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면 전입의 사유를 7개(직업, 교육, 가족, 주거 환경, 주택, 자연환경, 그 밖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입자는 이 가운데 주된 전입 사유 1개를 선택함

<표 2-1> 전입신고서 서식(조사표)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	---

- 2010년에서 2019년의 10년간 고양시 전입 사례는 약 55만 8천여 건(89만 4천여 명)으로 이 중 1인 전입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에 따른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2-2> 고양시 전입 사례와 전입 인구

(단위: 건, %, 명)

이동자 수	전입 사례	비율	이동 인구수
1명	386,776	(69.21%)	386,776
2명	70,480	(12.61%)	140,960
3명	52,070	(9.32%)	156,210
4명	39,635	(7.09%)	158,540
5명	8,134	(1.46%)	40,670
6명	1,351	(0.24%)	8,106
7명	274	(0.05%)	1,918
8명	68	(0.01%)	544
9명	25	(0.00%)	225
10명	6	(0.00%)	60
계	558,819	(100%)	894,009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 [그림 2-1]에 따르면 10년간 고양시 전입 사례 수는 연도에 따라 등락을 보이며, 2010년 5만 9천여 건에서 2017년과 2018년 5만 건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2019년 다시 약 5만 9천 건 수준으로 상승
- 2010년 전입 인구수는 9만 6천여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7년 7만 5천여 명 수준으로 사례 수와 전입 인구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1] 고양시 연도별 전입 사례와 전입 인구

(단위: 건, 명)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 <표 2-3>에 따르면 10대 미만의 전입 사례는 점차 감소추세로 2013년 이후에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10대의 경우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2010년 2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10% 후반대로 감소 후 2017년 다시 20% 수준을 회복
- 30대의 경우 2011년까지 30% 정도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20% 중 후반 수준으로 감소였으며 40대의 경우 10% 후반 수준에서 2014년(2012년 제외)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냄
- 50대 이상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60대의 경우 7% 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9년 약 8.9%까지 비중이 증가
- 70대의 경우 5%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0대 이상의 경우 2010년 2.1% 수준에서 2018년 3.7% 수준까지 증가

<표 2-3>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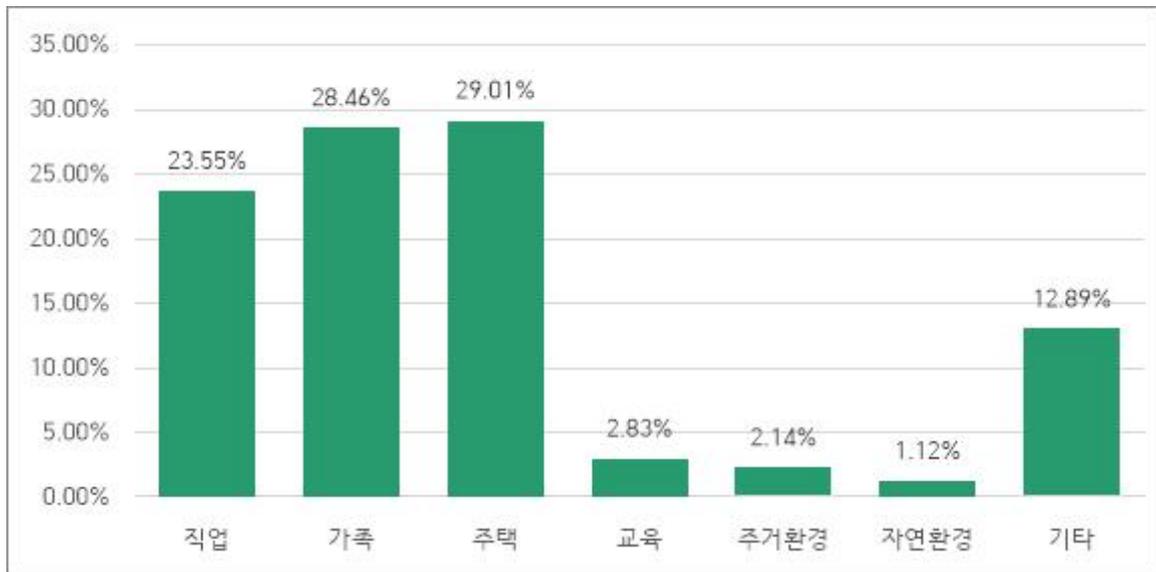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715 (1.20%)	1,555 (2.61%)	11,953 (20.04%)	18,591 (31.16%)	11,688 (19.59%)	6,737 (11.29%)	4,254 (7.13%)	2,897 (4.86%)	1,264 (2.12%)	59,654 (100%)
2011	639 (1.10%)	1,470 (2.53%)	11,041 (19.04%)	17,723 (30.56%)	11,686 (20.15%)	6,977 (12.03%)	4,217 (7.27%)	2,882 (4.97%)	1,363 (2.35%)	57,998 (100%)
2012	575 (1.06%)	1,413 (2.60%)	10,303 (18.94%)	16,234 (29.84%)	10,863 (19.97%)	7,039 (12.94%)	3,808 (7.0%)	2,739 (5.03%)	1,432 (2.63%)	54,406 (100%)
2013	501 (0.90%)	1,302 (2.33%)	9,655 (17.28%)	16,661 (29.81%)	11,264 (20.16%)	7,496 (13.41%)	4,302 (7.70%)	3,132 (5.60%)	1,571 (2.81%)	55,884 (100%)
2014	503 (0.91%)	1,253 (2.27%)	9,691 (17.53%)	16,133 (29.18%)	11,230 (20.31%)	7,561 (13.68%)	4,271 (7.72%)	3,070 (5.55%)	1,577 (2.85%)	55,289 (100%)
2015	478 (0.81%)	1,320 (2.24%)	10,513 (17.88%)	15,961 (27.14%)	11,618 (19.75%)	8,537 (14.52%)	5,051 (8.59%)	3,418 (5.81%)	1,915 (3.26%)	58,811 (100%)
2016	440 (0.80%)	1,166 (2.13%)	10,876 (19.83%)	14,552 (26.54%)	10,381 (18.93%)	7,841 (14.30%)	4,722 (8.61%)	3,073 (5.60%)	1,784 (3.25%)	54,835 (100%)
2017	407 (0.81%)	1,142 (2.28%)	10,811 (21.56%)	12,911 (25.75%)	9,409 (18.76%)	6,945 (13.85%)	4,191 (8.36%)	2,603 (5.19%)	1,729 (3.45%)	50,148 (100%)
2018	378 (0.73%)	1,121 (2.16%)	11,059 (21.28%)	13,156 (25.31%)	9,527 (18.33%)	7,353 (14.15%)	4,619 (8.89%)	2,844 (5.47%)	1,915 (3.68%)	51,972 (100%)
2019	352 (0.59%)	1,281 (2.14%)	13,219 (22.10%)	15,443 (25.81%)	10,639 (17.78%)	8,522 (14.25%)	5,341 (8.93%)	2,981 (4.98%)	2,044 (3.42%)	59,822 (100%)
계	4,988 (0.89%)	13,023 (2.33%)	109,121 (19.53%)	157,365 (28.16%)	108,305 (19.38%)	75,008 (13.42%)	44,776 (8.01%)	29,639 (5.30%)	16,594 (2.97%)	558,819 (100%)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 고양시 연도별 전입 사유 변화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전체 전입 사례 기준 주된 전입 이유는 주택(29%), 가족(28.5%), 직업(23.5%), 교육(2.83%), 주거환경(2.14%), 자연환경(1.1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 고양시 전입 사유(2010년~2019년 전입 사례 전체) (단위: %)



- 201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고양시 전입의 주된 이유는 주택, 가족, 직업 등의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요인은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까지 가장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2017년 이후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 가족 요인은 전체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며 2017년 이후 가장 주된 요인으로 등장하였고, 직업요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이후 20% 중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 고양시 전입 사유(직업, 가족, 주택)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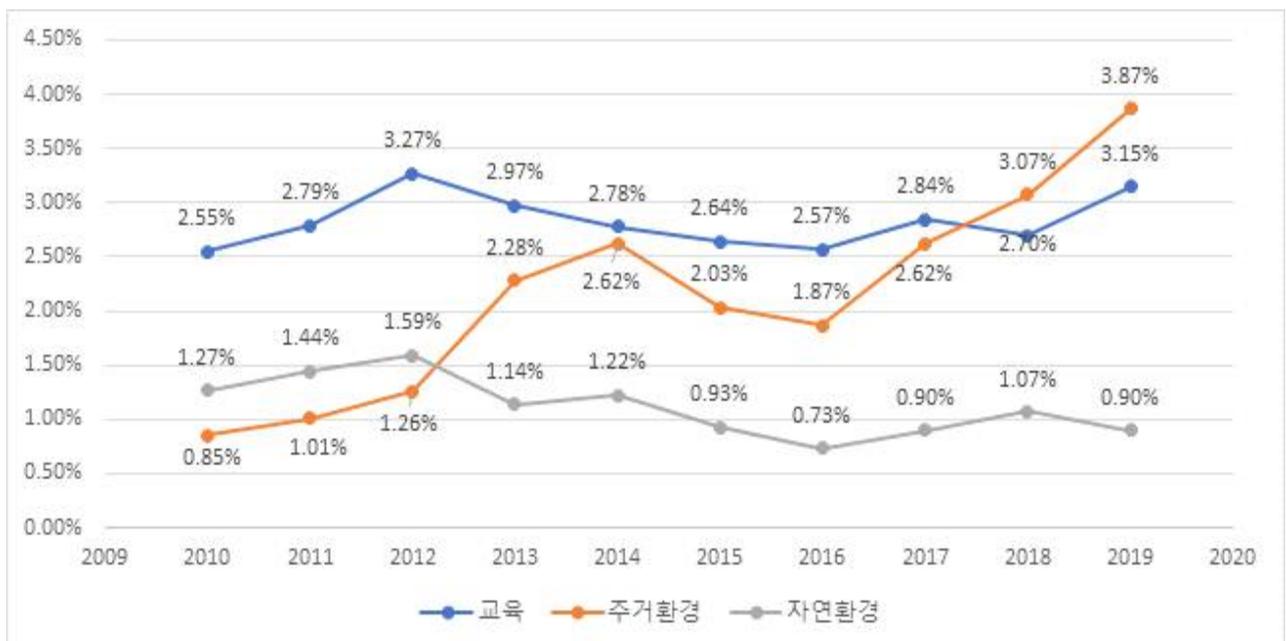
(단위: %)



- 교육요인은 2% 후반에서 3% 초반 사이에 분포하며, 주거환경요인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급격히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를 돌아섰으나, 최근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자연환경요인은 2012년 이후 전체 요인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2-4] 고양시 전입 사유(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연도별 추이

(단위: %)



□ 고양시 연령별 전입 사유 변화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로의 주된 전입 이유는 주택, 가족, 직업,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 주된 전입 사유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 2-4> 연령별 전입 사유(2010년 ~2019년 전체)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130 (2.61%)	2,600 (52.13%)	332 (6.66%)	1,192 (23.90%)	50 (1.0%)	23 (0.46%)	661 (13.25%)	4,988 (100%)
10대	803 (6.17%)	6,587 (50.58%)	917 (7.04%)	2,924 (22.45%)	198 (1.52%)	53 (0.41%)	1,541 (11.83%)	13,023 (100%)
20대	37,381 (34.26%)	36,572 (33.52%)	16,341 (14.98%)	4,692 (4.30%)	2,336 (2.14%)	257 (0.24%)	11,542 (10.58%)	109,121 (100%)
30대	41,847 (26.59%)	43,288 (27.51%)	46,749 (29.71%)	2,349 (1.49%)	3,590 (2.28%)	776 (0.49%)	18,766 (11.93%)	157,365 (100%)
40대	27,886 (25.75%)	22,297 (20.59%)	36,476 (33.68%)	3,411 (3.15%)	2,235 (2.06%)	850 (0.78%)	15,150 (13.99%)	108,305 (100%)
50대	15,999 (21.33%)	17,576 (23.43%)	27,362 (36.48%)	805 (1.07%)	1,480 (1.97%)	1,007 (1.34%)	10,779 (14.37%)	75,008 (100%)
60대	5,327 (11.90%)	13,034 (29.11%)	17,632 (39.38%)	210 (0.47%)	878 (1.96%)	1,029 (2.30%)	6,666 (14.89%)	44,776 (100%)
70대	1,667 (5.62%)	10,219 (34.48%)	11,408 (38.49%)	147 (0.50%)	665 (2.24%)	1,168 (3.94%)	4,365 (14.73%)	29,639 (100%)
80대 이상	582 (3.51%)	6,891 (41.53%)	4,911 (29.60%)	60 (0.36%)	514 (3.10%)	1,094 (6.59%)	2,542 (15.32%)	16,594 (100%)
계	131,622 (23.55%)	159,064 (28.46%)	162,128 (29.01%)	15,790 (2.83%)	11,946 (2.14%)	6,257 (1.12%)	72,012 (12.89%)	558,819 (100%)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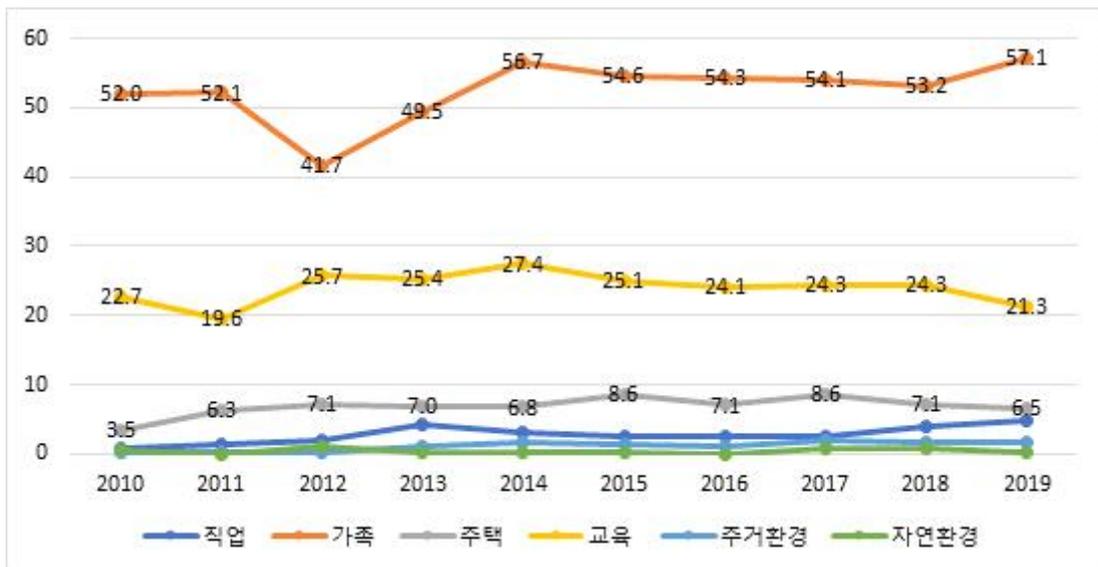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의 기간 동안 10대 미만 전체 전입 사례 기준 주된 전입 이유는 직업(2.61%), 가족(52.1%), 주택(6.66%), 교육(23.9%), 주거환경(1%), 자연환경(0.46%)로 가족 요인이 가장 높은 반면, 10대의 경우 전체 전입 사례 기준 주된 전입 이유는 직업(6.17%), 가족(50.58%), 주택(7.04%), 교육(22.45%), 주거환경(1.52%), 자연환경(0.41%)로 10대 미만과 유사하게 가족요인과 교육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의 경우 직업(34.26%), 가족(33.52%), 주택(14.98%), 교육(4.30%), 주거환경(2.14%), 자연환경(0.24%)로 직업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30대의 경우 직업(26.59%), 가족(27.51%), 주택(29.71%), 교육(1.49%), 주거환경(2.28%), 자연환경(0.49%)로 가족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대에 비해 주택요인 비중이 크게 증가함

- 40대의 경우 직업(25.75%), 가족(20.59%), 주택(33.68%), 교육(3.15%), 주거환경(2.06%), 자연환경(0.78%)로 주택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50대의 경우 직업(21.33%), 가족(23.43%), 주택(36.48%), 교육(1.07%), 주거환경(1.97%), 자연환경(1.34%)로 40대에 비해 주택요인의 비중이 높고 교육과 직업요인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 60대의 경우 직업(11.9%), 가족(29.11%), 주택(39.38%), 교육(0.47%), 주거환경(1.96%), 자연환경(2.3%)로 주택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70대의 경우 직업(5.62%), 가족(34.48%), 주택(38.49%), 교육(0.5%), 주거환경(2.24%), 자연환경(3.94%)로 가족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요인이 더욱 증가하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자연환경 요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입 사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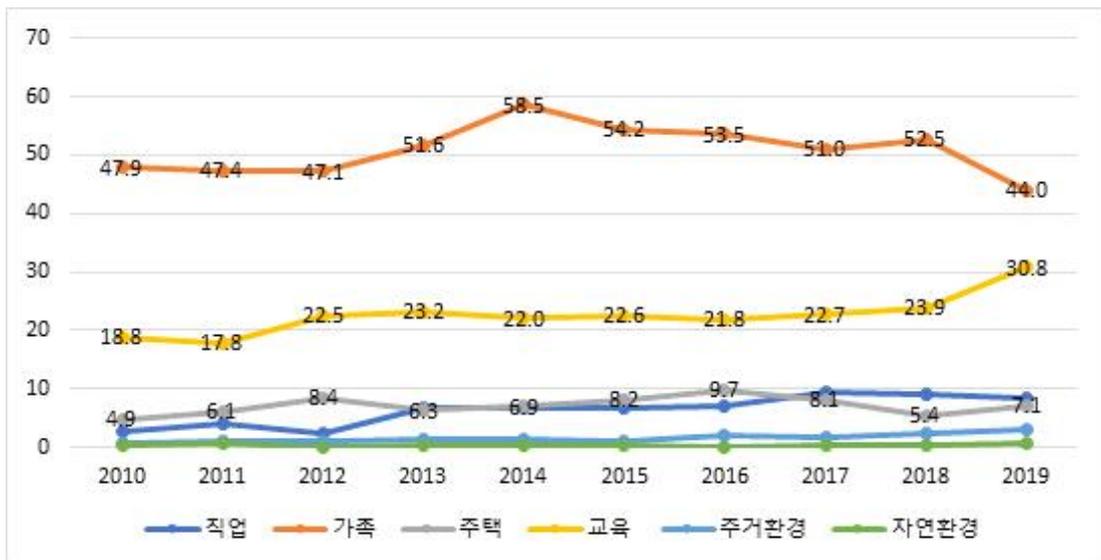
- 10대 미만의 주요한 전입 사유는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교육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5] 고양시 10대 미만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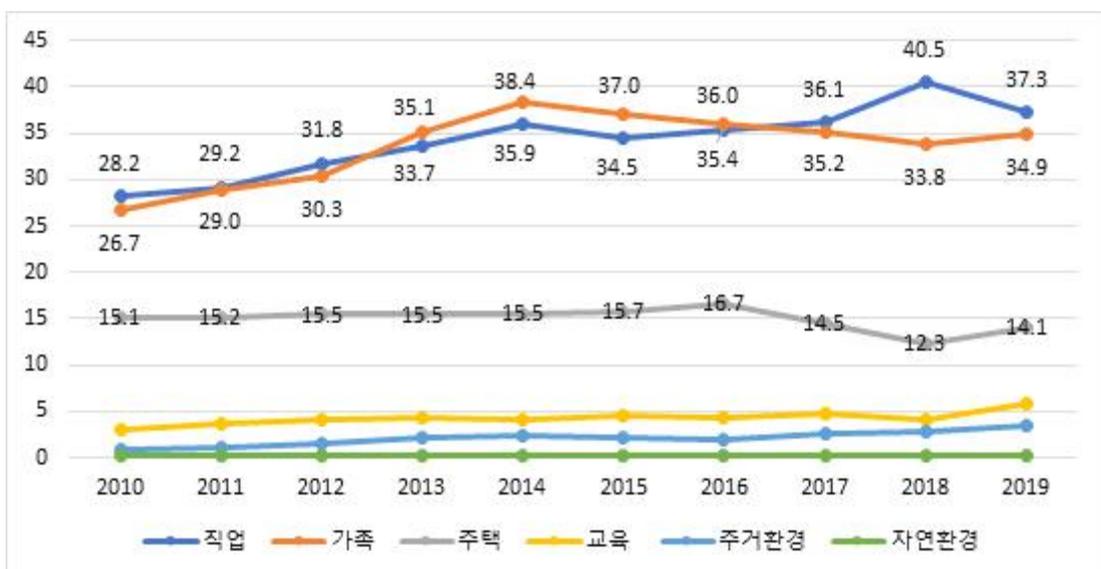
- 10대의 주요한 전입 사유는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교육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 요인은 감소추세이며 교육요인은 약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2-6] 고양시 1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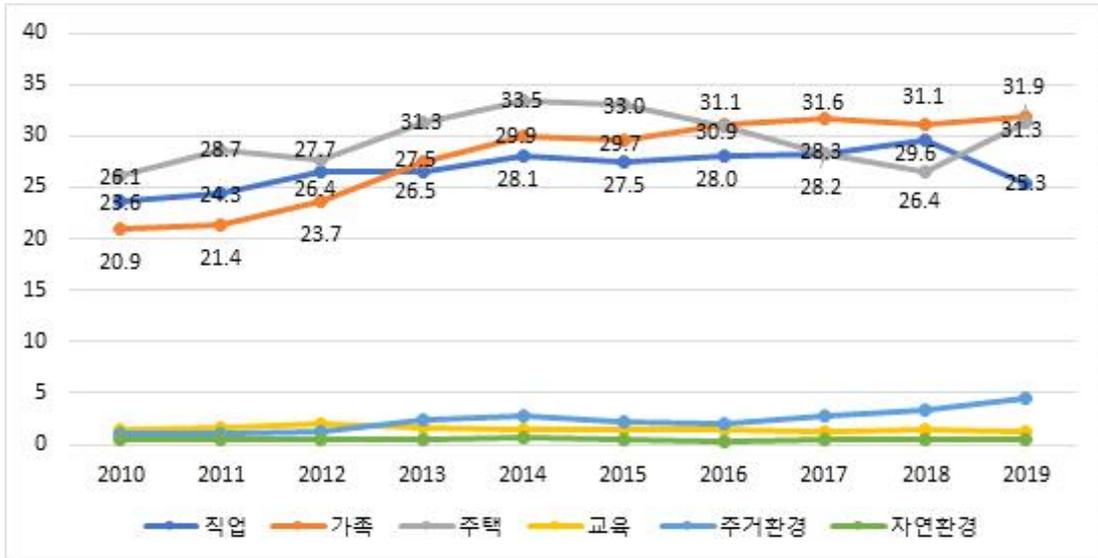
- 20대의 주요한 전입 사유는 직업과 가족 요인으로 직업요인은 증가추세인데 반해 가족요인은 감소추세를 보이며, 20대 미만과 달리 주택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2-7] 고양시 2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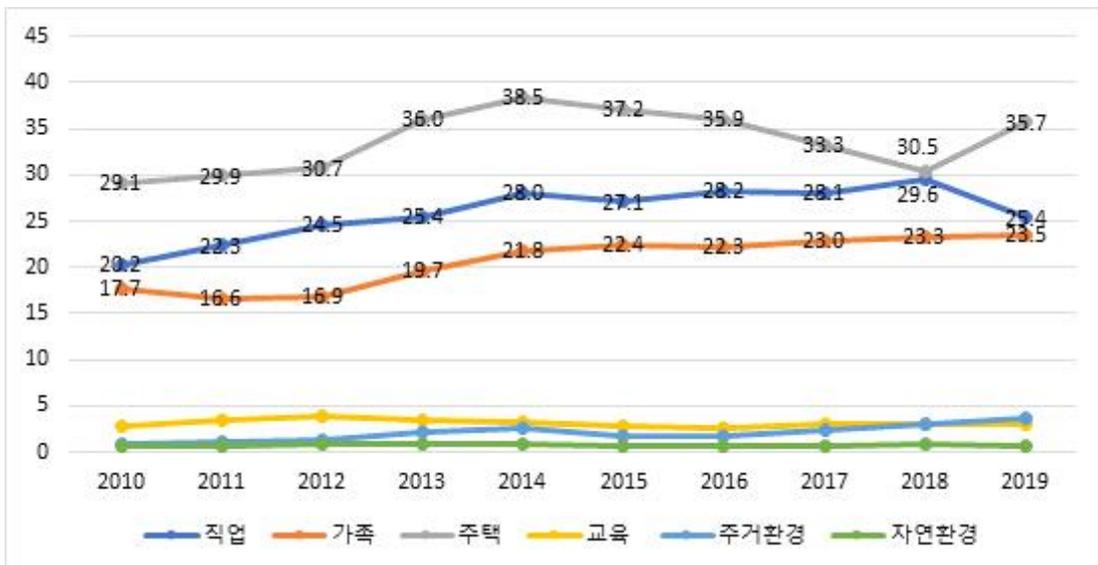
- 30대의 주요한 전입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요인으로, 2016년 이전에는 주택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가족요인이 가장 중요한 전입 사유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8] 고양시 3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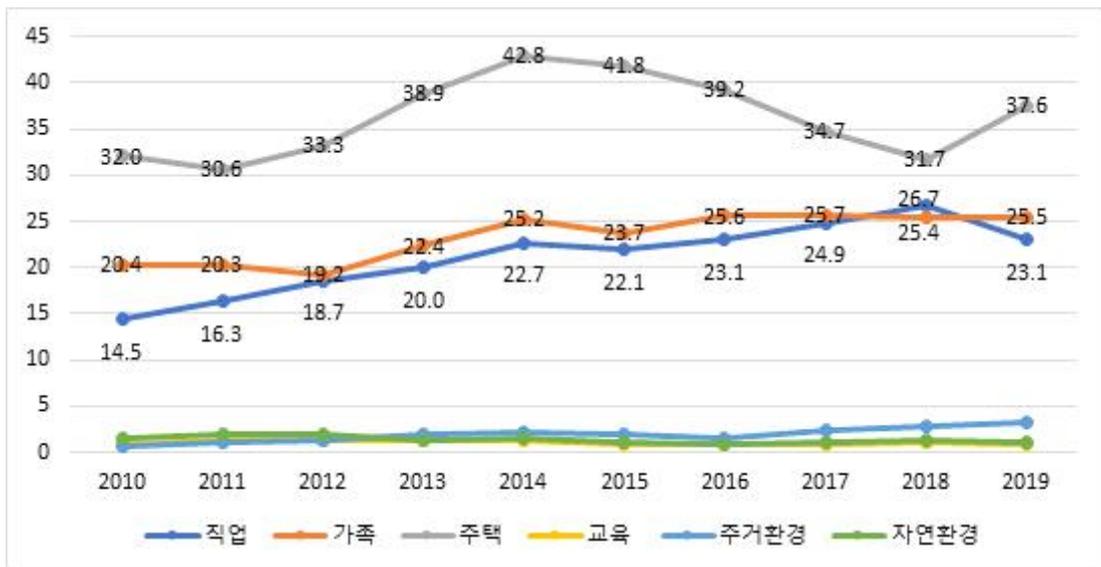
- 40대의 가장 주요한 전입 사유는 주택으로, 2014년까지 점차 상승한 이후 감소 양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양자가 점차 근접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2-9] 고양시 4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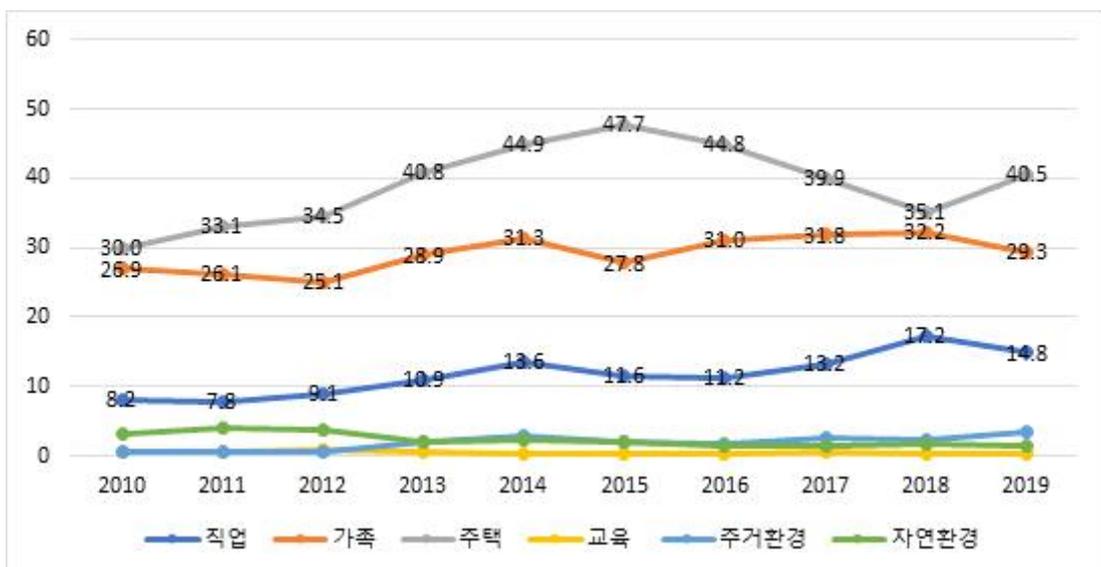
- 50대의 가장 주요한 전입 사유는 주택으로 그 형태는 역 유(U)자 모양을 보이며 가족과 직업요인은 약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그리고 2017년 이후 주거환경 요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0] 고양시 5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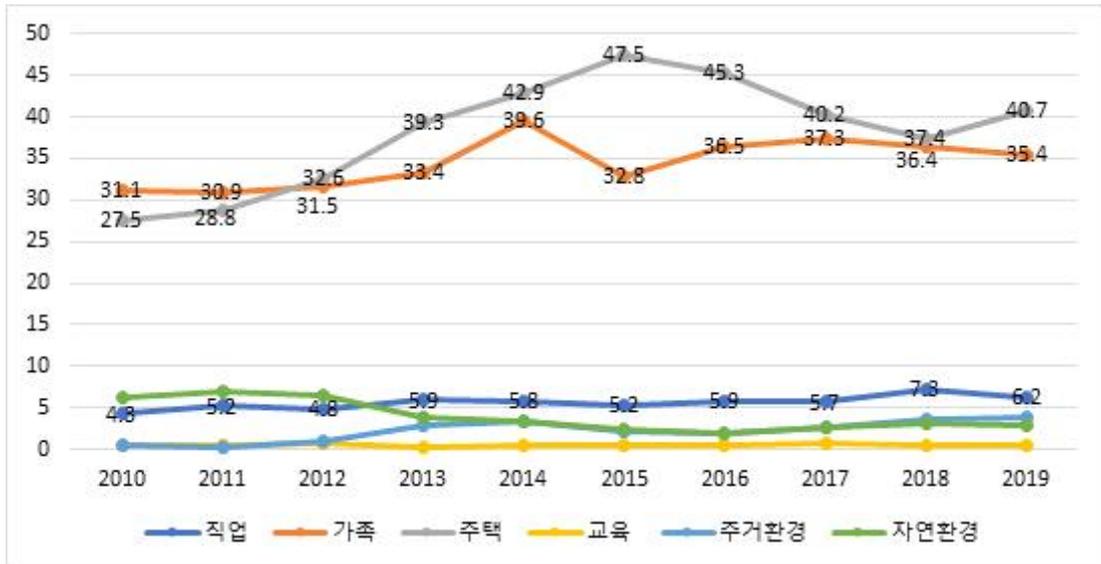
- 60대의 가장 주요한 전입 사유는 주택이며 이어 가족과 직업요인의 비중이 높고 직업요인은 201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1] 고양시 6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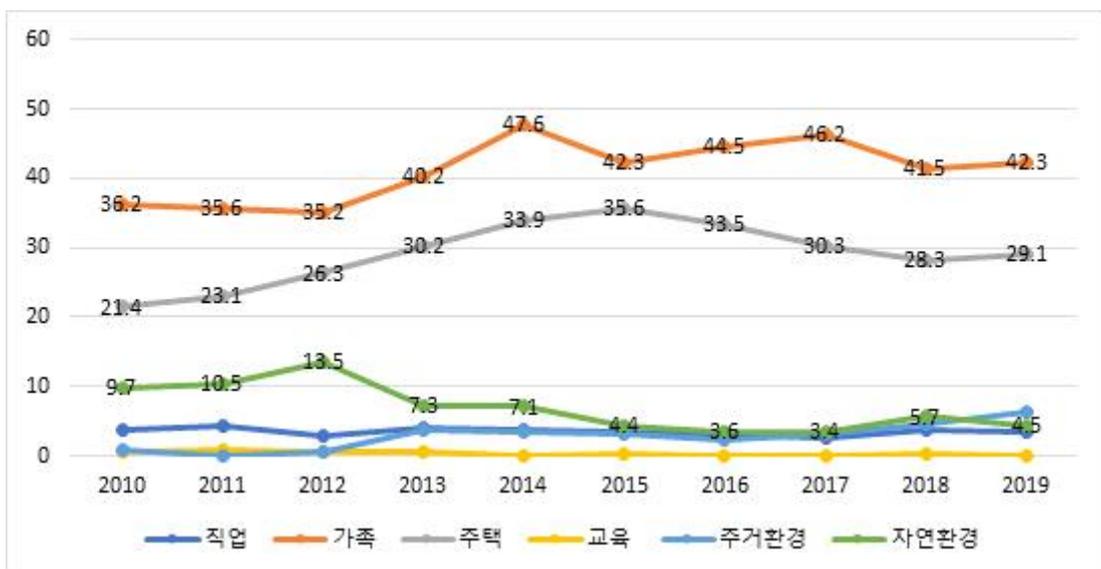
- 70대의 가장 주요한 전입 사유는 주택과 가족요인으로, 이전 연령층에 비해 직업요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가족요인의 비중이 상승하였음

[그림 2-12] 고양시 70대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 80대의 가장 주요한 전입 사유는 주택과 가족요인으로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며, 자연환경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2-13] 고양시 80대 이상 전입자의 주된 전입 사유 변화추이 (단위: %)



Ⅲ. 고양시 전출 현황과 이유

GYRI

□ 고양시 전출자 현황

- 2010년에서 2019년의 10년간 고양시 전출사례는 51만 923건(80만 1천 99명)으로 이 중 1인 전출사례가 가장 많은 약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반 이동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표 3-1> 고양시 전출 사례와 전출 인구 (단위: 건,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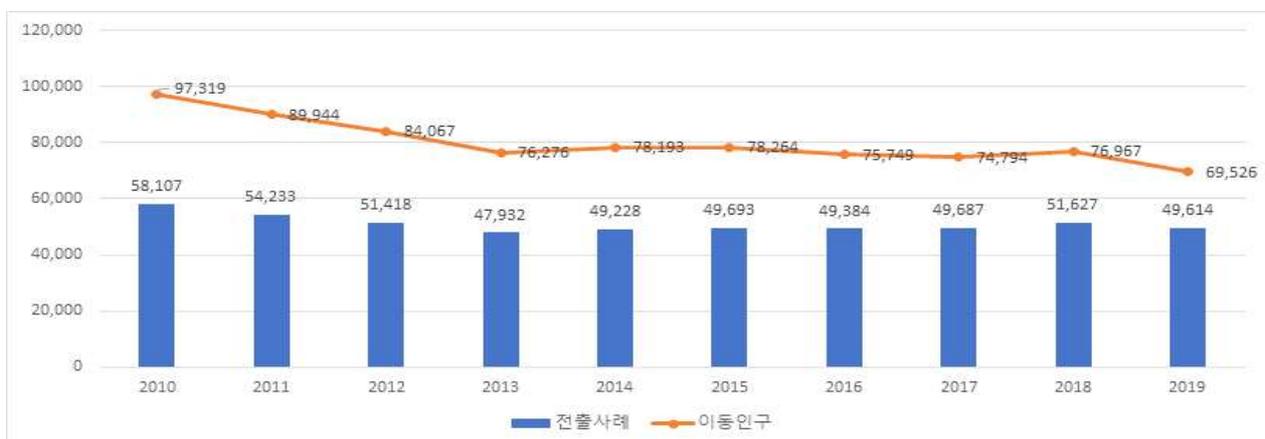
이동자 수	전출사례	비율	이동 인구수
1명	361,839	(70.82%)	361,839
2명	61,393	(12.02%)	122,786
3명	44,251	(8.66%)	132,753
4명	35,210	(6.89%)	140,840
5명	6,855	(1.34%)	34,275
6명	1,115	(0.22%)	6,690
7명	192	(0.04%)	1,344
8명	45	(0.01%)	360
9명	18	(0.00%)	162
10명	5	(0.00%)	50
계	510,923	(100%)	801,099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 10년간 고양시 전출 사례는 51만 923건으로 연도별 등락이 있으나, 2013년 이후 5만 건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4만 9천 건 수준에서 진동을 거듭하고 있음
- 전출인구 수는 2010년 9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임

[그림 3-1] 고양시 연도별 전출 사례와 전출 인구

(단위: 건, 명)



- <표 3-2>에 따르면 10대 미만의 경우 사례 수가 적기는 하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이후 1% 이하의 비중을 나타냄
- 10대의 경우 등락이 있으나 2%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2015년까지는 10% 후반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 20% 수준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30대의 경우 2010년대 초반 20% 후반 수준에서 2010년대 후반 2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40대의 경우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이후 뚜렷한 감소 경향
- 50대의 경우 2010년 12.9% 수준에서 2015년 15.5%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0년대 중·후반 이후 60대와 80대 이상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70대는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남

<표 3-2>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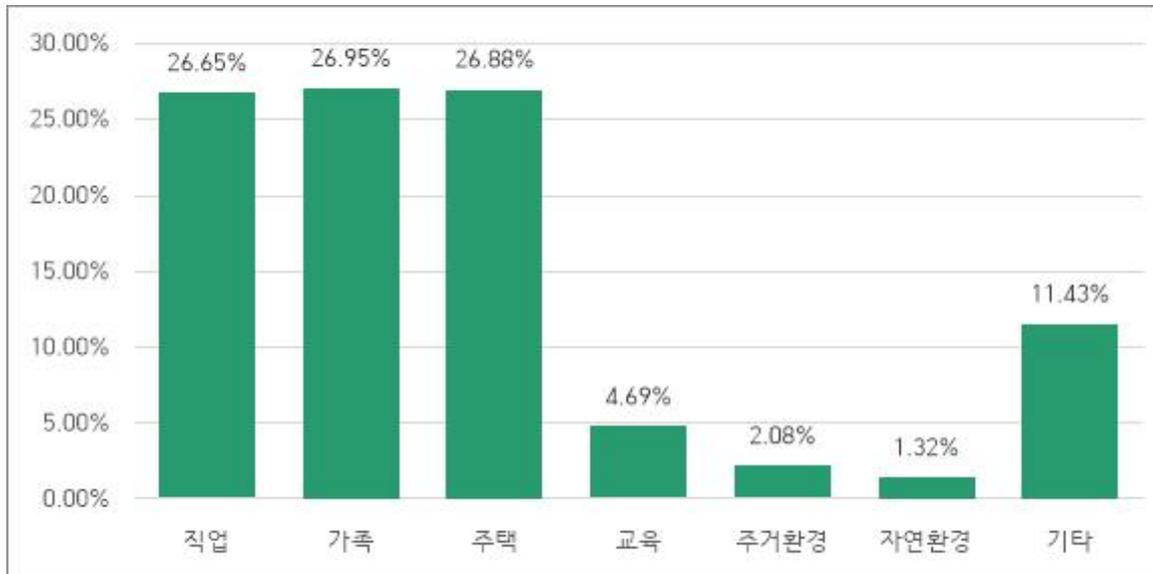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계
2010	703 (1.21%)	1,628 (2.80%)	10,405 (17.91%)	16,736 (28.80%)	12,807 (22.04%)	7,506 (12.92%)	4,197 (7.22%)	2,855 (4.91%)	1,270 (2.19%)	58,107 (100%)
2011	538 (0.99%)	1,637 (3.02%)	9,586 (17.68%)	15,657 (28.87%)	11,774 (21.71%)	7,288 (13.44%)	3,865 (7.13%)	2,639 (4.87%)	1,249 (2.30%)	54,233 (100%)
2012	567 (1.10%)	1,596 (3.10%)	9,167 (17.83%)	14,649 (28.49%)	11,035 (21.46%)	7,252 (14.10%)	3,539 (6.88%)	2,437 (4.74%)	1,176 (2.29%)	51,418 (100%)
2013	462 (0.96%)	1,412 (2.95%)	8,561 (17.86%)	13,356 (27.86%)	10,219 (21.32%)	6,795 (14.18%)	3,434 (7.16%)	2,509 (5.23%)	1,184 (2.47%)	47,932 (100%)
2014	435 (0.88%)	1,418 (2.88%)	9,140 (18.57%)	13,287 (26.99%)	10,494 (21.32%)	7,254 (14.74%)	3,578 (7.27%)	2,361 (4.80%)	1,261 (2.56%)	49,228 (100%)
2015	424 (0.85%)	1,366 (2.75%)	9,516 (19.15%)	12,684 (25.52%)	10,407 (20.94%)	7,712 (15.52%)	3,872 (7.79%)	2,376 (4.78%)	1,336 (2.69%)	49,693 (100%)
2016	398 (0.81%)	1,375 (2.78%)	9,931 (20.11%)	12,554 (25.42%)	9,872 (19.99%)	7,514 (15.22%)	3,996 (8.09%)	2,400 (4.86%)	1,344 (2.72%)	49,384 (100%)
2017	400 (0.81%)	1,330 (2.68%)	11,177 (22.49%)	12,474 (25.11%)	9,269 (18.65%)	7,399 (14.89%)	3,981 (8.01%)	2,231 (4.49%)	1,426 (2.87%)	49,687 (100%)
2018	356 (0.69%)	1,380 (2.67%)	12,330 (23.88%)	12,628 (24.46%)	9,324 (18.06%)	7,612 (14.74%)	4,329 (8.39%)	2,193 (4.25%)	1,475 (2.86%)	51,627 (100%)
2019	332 (0.67%)	1,471 (2.96%)	12,982 (26.17%)	11,458 (23.09%)	8,571 (17.28%)	7,162 (14.44%)	4,182 (8.43%)	2,054 (4.14%)	1,402 (2.83%)	49,614 (100%)
계	4,615 (0.90%)	14,613 (2.86%)	102,795 (20.12%)	135,483 (26.52%)	103,772 (20.31%)	73,494 (14.38%)	38,973 (7.63%)	24,055 (4.71%)	13,123 (2.57%)	510,923 (100%)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 고양시 연도별 전출 사유 변화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전체 전출 사례 기준 주된 전출 이유는 가족(26.95%), 주택(26.88%), 직업(26.65%), 교육(4.69%), 주거환경(2.08%), 자연환경(1.3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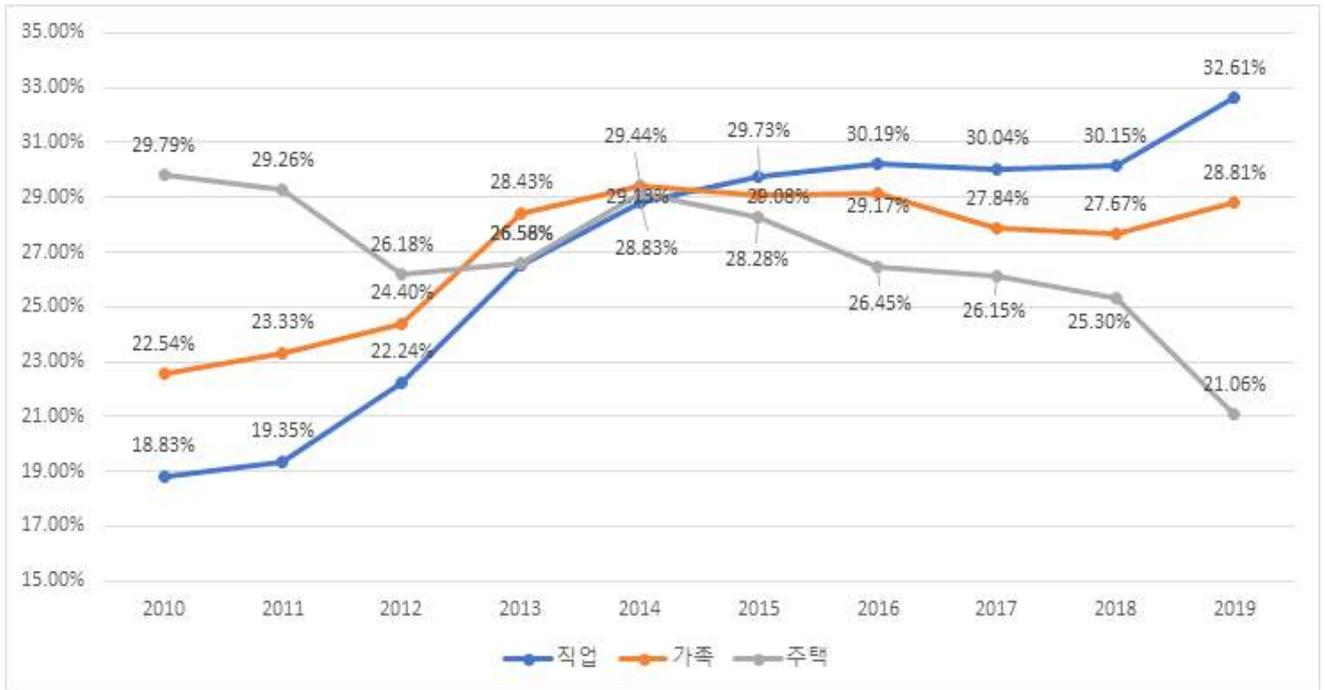
[그림 3-2] 고양시 전출 사유(2010년~2019년 전출 사례 전체) (단위: %)



- 201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고양시 전출의 주된 이유인 가족, 주택, 직업요인 등은 그 전체적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도별 추이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분포함
 - 직업요인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택요인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가족요인은 2014년 이후 20% 후반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3] 고양시 전출 사유(가족, 주택, 직업)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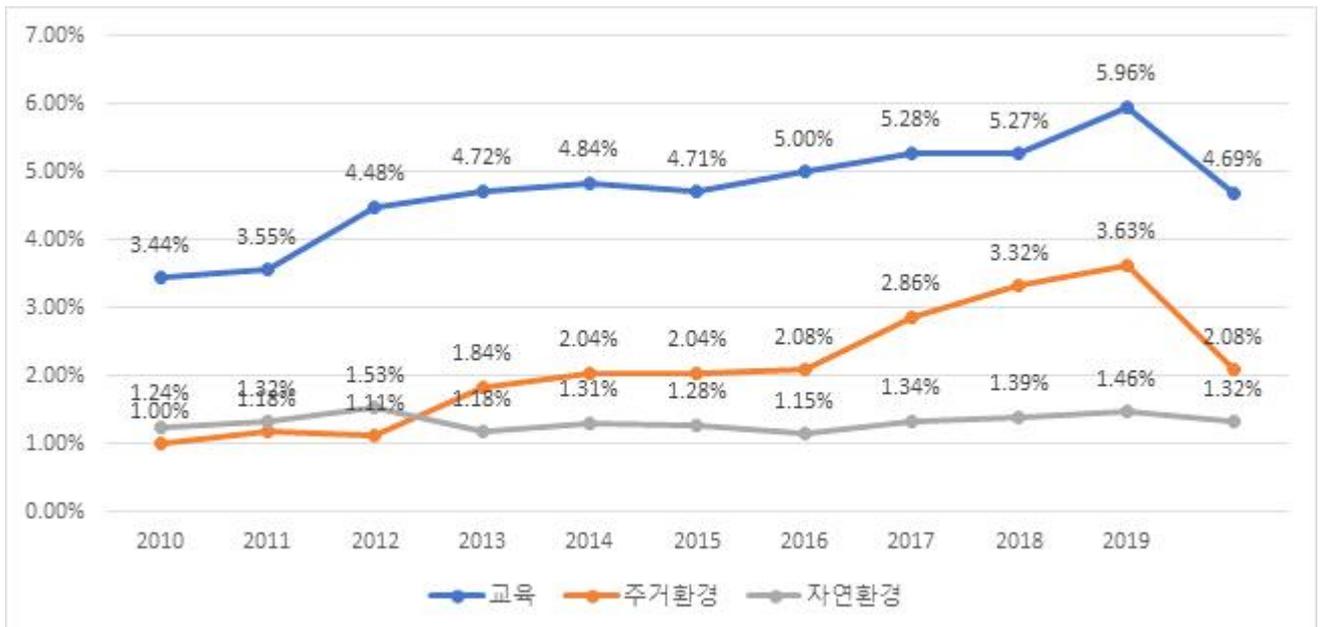
(단위: %)



- 교육요인은 3% 중반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6년 5%를 넘어섰으며, 주거환경요인은 최근 그 비중이 상승하였고 자연환경요인은 1% 중반 수준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3-4] 고양시 전출 사유(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연도별 추이

(단위: %)



□ 고양시 연령별 전출 사유 변화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주된 전출 이유는 가족, 주택, 직업,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 주된 전출 사유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 3-3> 연령별 전출 사유(2010년 ~2019년 전체)

(단위: 건,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10대 미만	143 (3.10%)	2,372 (51.40%)	252 (5.46%)	1,216 (26.35%)	41 (0.89%)	21 (0.46%)	570 (12.35%)	4,615 (100%)
10대	781 (5.34%)	4,352 (29.78%)	793 (5.43%)	7,190 (49.20%)	210 (1.44%)	60 (0.41%)	1,227 (8.40%)	14,613 (100%)
20대	37,158 (36.15%)	31,818 (30.95%)	13,714 (13.34%)	8,758 (8.52%)	2,194 (2.13%)	324 (0.32%)	8,829 (8.59%)	102,795 (100%)
30대	41,029 (30.28%)	38,105 (28.13%)	35,900 (26.50%)	1,986 (1.47%)	2,784 (2.05%)	742 (0.55%)	14,937 (11.02%)	135,483 (100%)
40대	30,394 (29.29%)	20,802 (20.05%)	32,489 (31.31%)	3,406 (3.28%)	2,069 (1.99%)	1,106 (1.07%)	13,506 (13.02%)	103,772 (100%)
50대	18,592 (25.30%)	15,507 (21.10%)	26,079 (35.48%)	1,060 (1.44%)	1,520 (2.07%)	1,389 (1.89%)	9,347 (12.72%)	73,494 (100%)
60대	5,719 (14.67%)	11,066 (28.39%)	14,675 (37.65%)	193 (0.50%)	896 (2.30%)	1,271 (3.26%)	5,153 (13.22%)	38,973 (100%)
70대	1,709 (7.10%)	8,119 (33.75%)	9,318 (38.74%)	120 (0.50%)	542 (2.25%)	1,031 (4.29%)	3,216 (13.37%)	24,055 (100%)
80대 이상	615 (4.69%)	5,541 (42.22%)	4,118 (31.38%)	53 (0.40%)	388 (2.96%)	803 (6.12%)	1,605 (12.23%)	13,123 (100%)
계	136,140 (26.65%)	137,682 (26.95%)	137,338 (26.88%)	23,982 (4.69%)	10,644 (2.08%)	6,747 (1.32%)	58,390 (11.43%)	510,923 (100%)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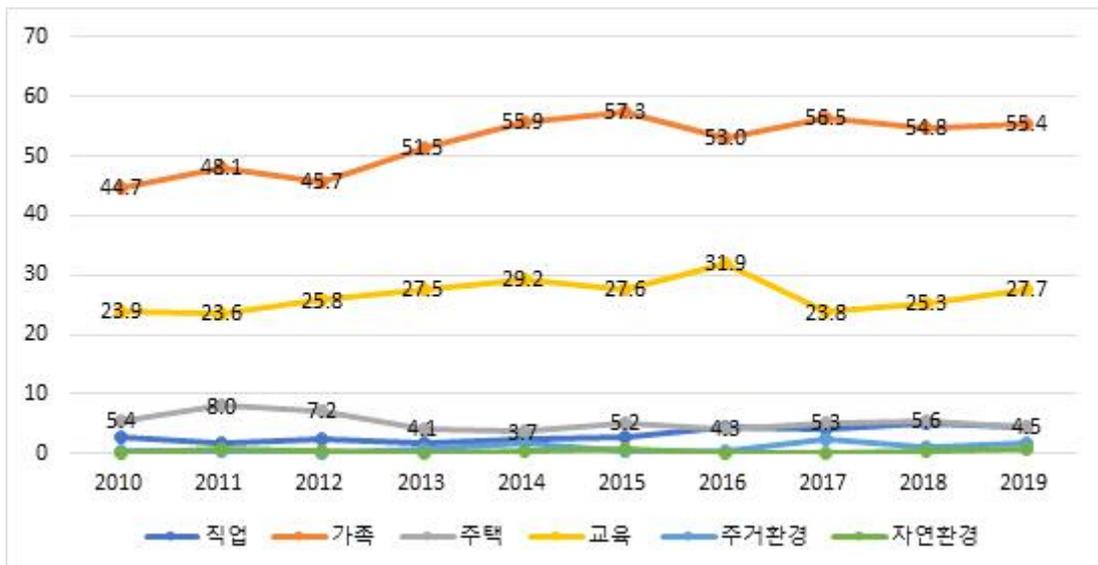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의 기간 동안 10대 미만 전체 전출 사례 기준 주된 전출 이유는 직업(3.1%), 가족(51.4%), 주택(5.46%), 교육(26.35%), 주거환경(0.89%), 자연환경(0.46%)로 가족 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10대의 경우 전체 전출 사례 기준 주된 전출 이유는 직업(5.34%), 가족(29.78%), 주택(5.43%), 교육(49.2%), 주거환경(1.44%), 자연환경(0.41%)로 교육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의 경우 직업(36.15%), 가족(30.95%), 주택(13.34%), 교육(8.52%), 주거환경(2.13%), 자연환경(0.32%)로 직업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30대의 경우 직업(30.28%), 가족(28.13%), 주택(26.5%), 교육(1.47%), 주거환경(2.05%), 자연환경(0.55%)로 직업요인의 비

- 중이 가장 높으나, 20대에 비해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의 비중은 줄어든 대신 주택요인 비중이 크게 증가함
- 40대의 경우 직업(29.29%), 가족(20.05%), 주택(31.31%), 교육(3.28%), 주거환경(1.99%), 자연환경(1.07%)로 주택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50대의 경우 직업(25.3%), 가족(21.1%), 주택(35.48%), 교육(1.44%), 주거환경(2.07%), 자연환경(1.89%)로 40대에 비해 주택요인의 비중이 높고 교육요인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 60대의 경우 직업(14.67%), 가족(28.39%), 주택(37.65%), 교육(0.5%), 주거환경(2.3%), 자연환경(3.26%)로 주택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70대의 경우 직업(7.1%), 가족(33.75%), 주택(38.74%), 교육(0.5%), 주거환경(2.25%), 자연환경(4.29%), 그리고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요인(42.22%), 주택요인(31.3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주택요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고양시 연도별 연령별 전출 사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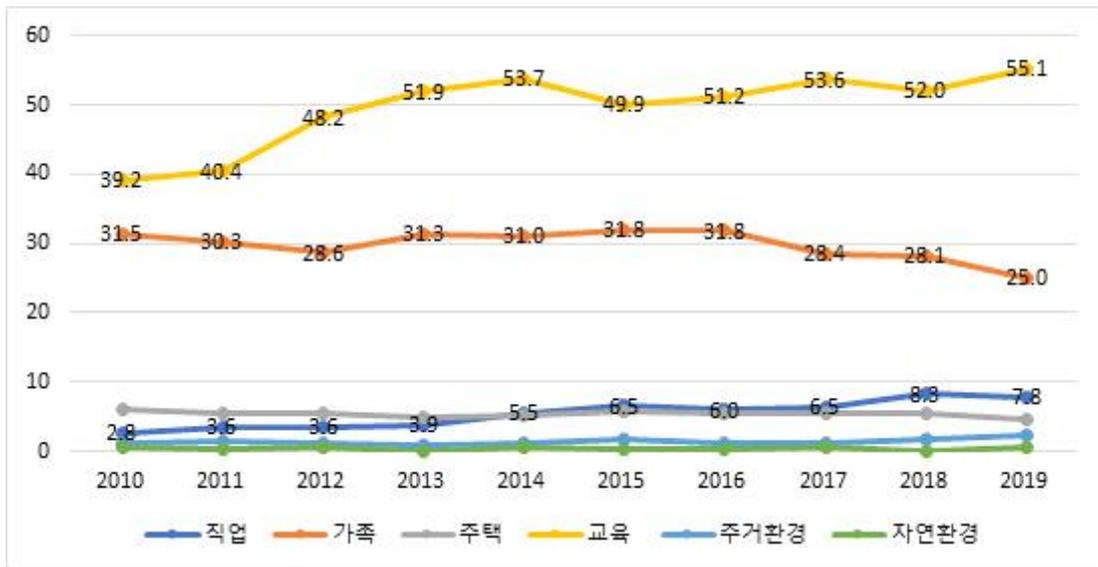
- 10대 미만의 주요한 전출 사유는 가족요인으로 전체 사유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교육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5] 고양시 10대 미만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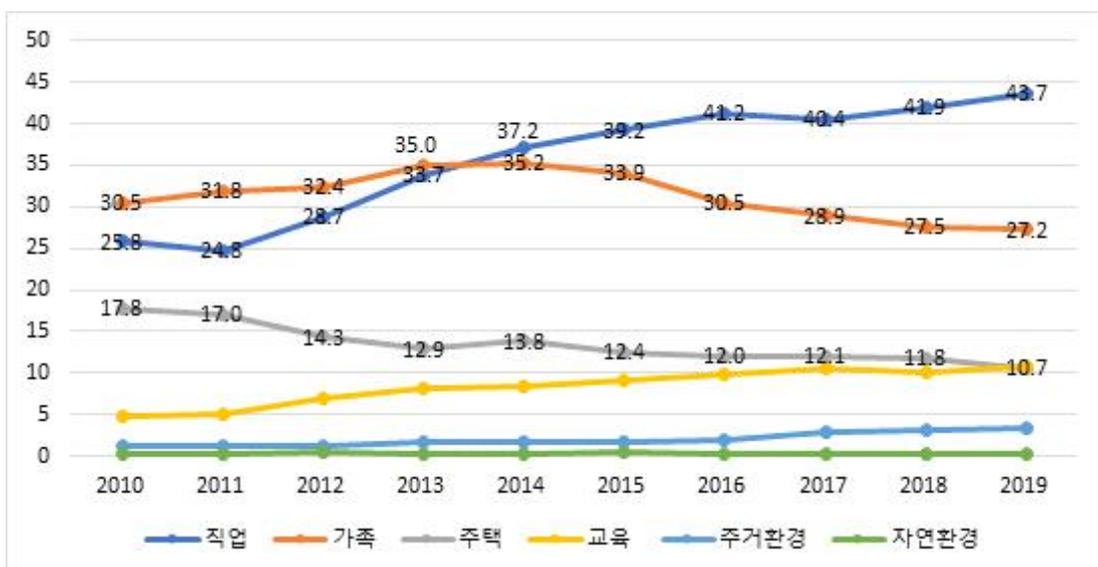
- 10대의 주요한 전출 사유는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가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 요인은 약하게 감소추세이며 교육은 2013년 이후 약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6] 고양시 1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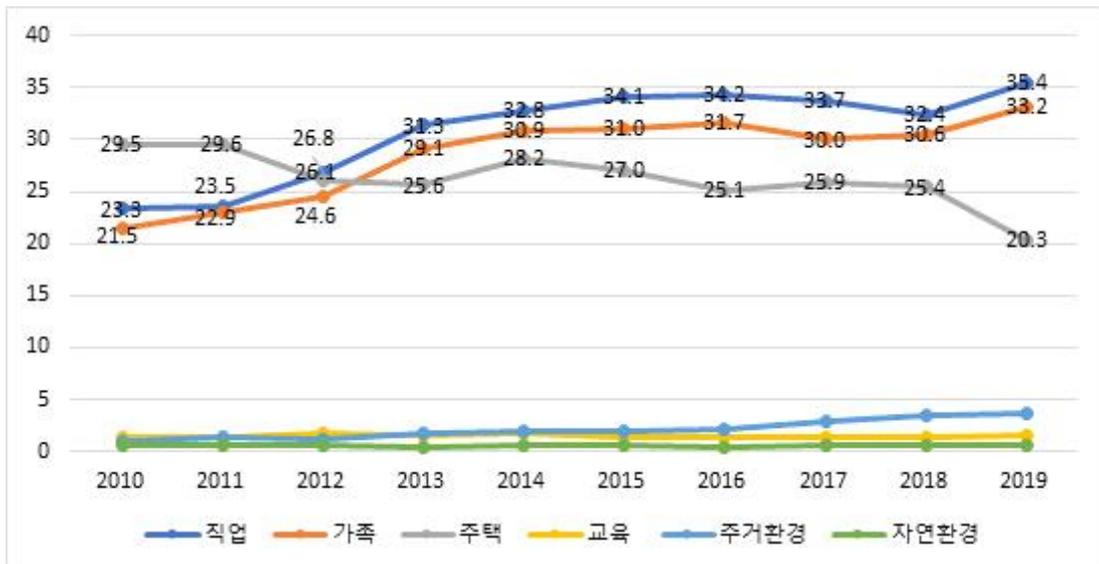
- 20대의 주요한 전출 사유는 직업과 가족 요인으로 2013년 이전에는 가장 주요한 사유가 가족요인이었으나, 2014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직업요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주택요인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7] 고양시 2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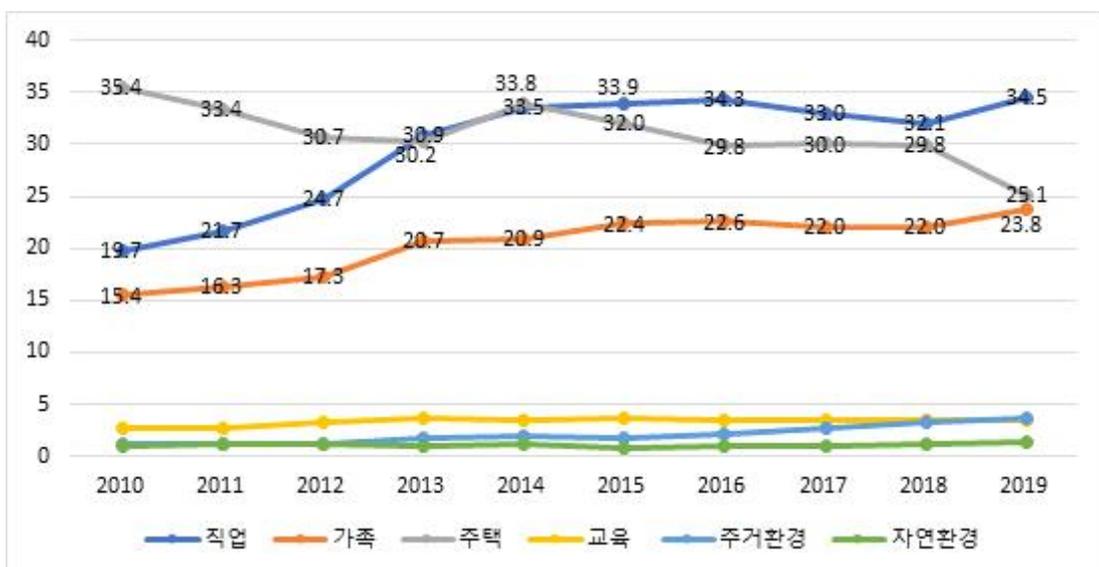
- 30대의 주요한 전출 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직업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가족요인은 상승 추세인 반면 주택요인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8] 고양시 3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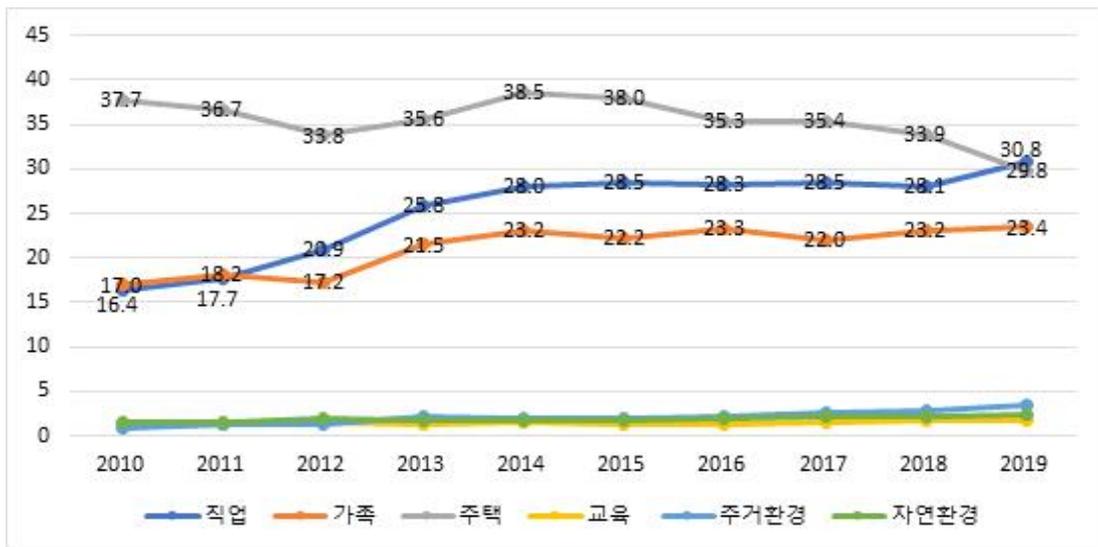
- 40대의 가장 주요한 전출 사유는 최근 주택에서 직업요인으로 바뀌었으며, 가족과 직업요인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택요인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그림 3-9] 고양시 4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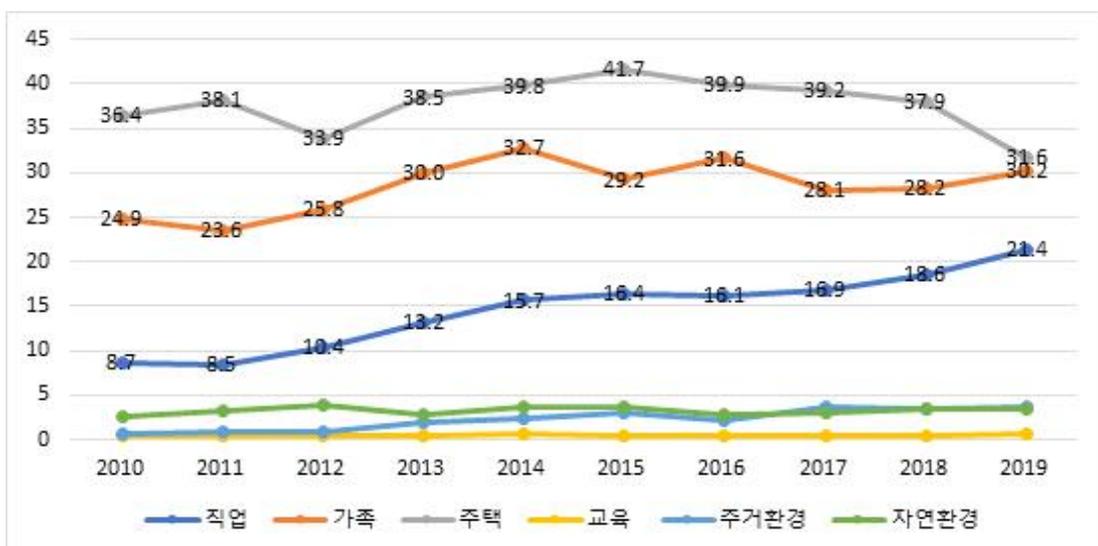
- 50대의 가장 주요한 전출 사유는 주택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추세이며, 이어 직업요인과 가족요인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3-10] 고양시 5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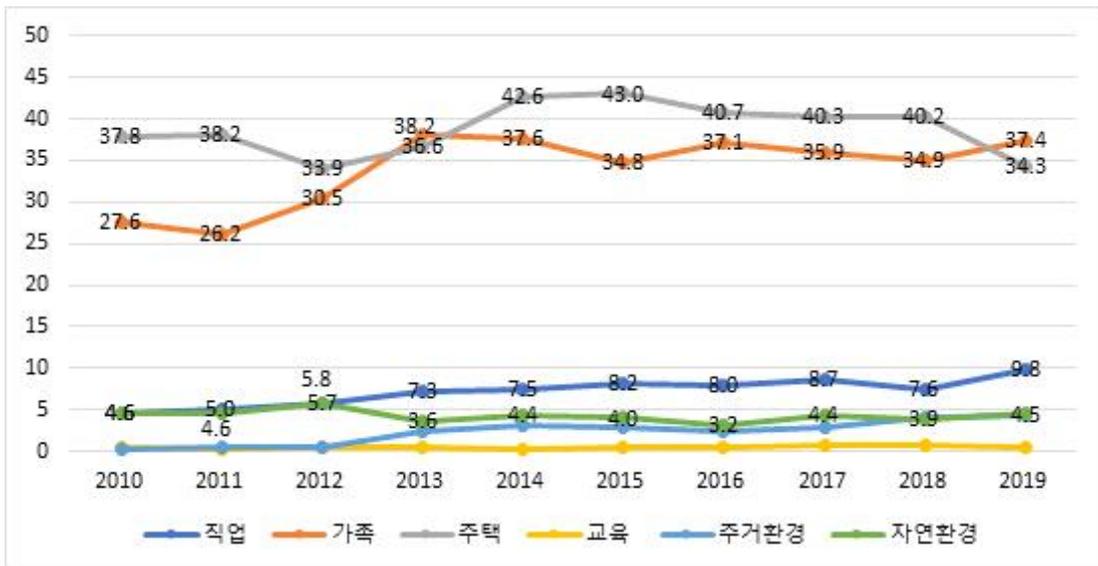
- 60대의 가장 주요한 전출 사유는 주택과 가족요인으로, 주택요인은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그리고 직업요인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환경 요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1] 고양시 6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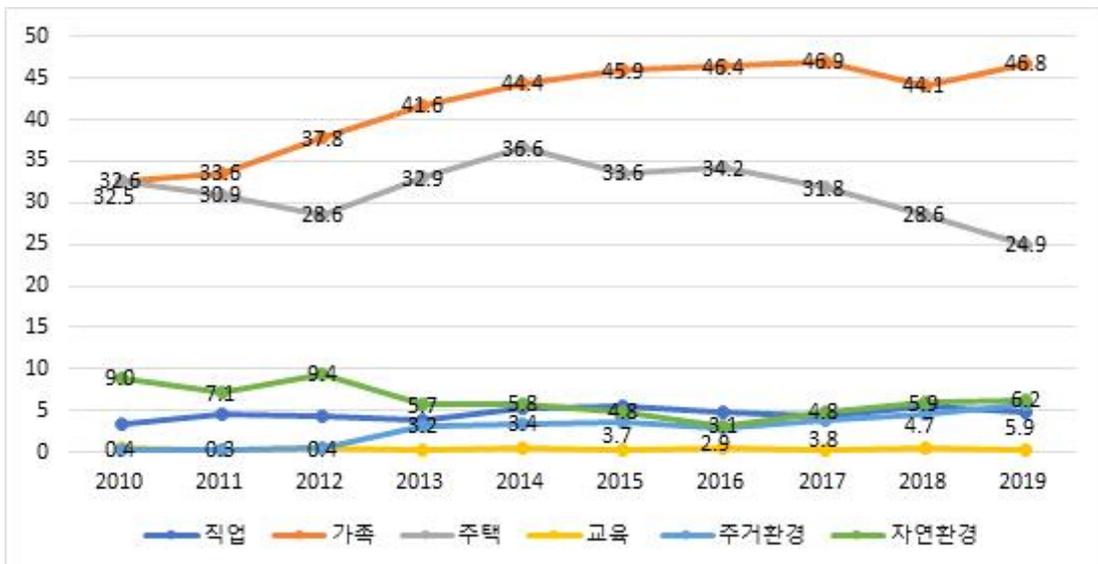
- 70대의 가장 주요한 전출 사유는 주택과 가족요인으로 주택요인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가족요인은 2013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대략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12] 고양시 70대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 80대의 가장 주요한 전출 사유 역시 가족과 주택요인으로 가족요인은 점차 상승추세를 그리고 주택요인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자연환경 요인과 주거환경 요인의 비중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13] 고양시 80대 이상 전출자의 주된 전출 사유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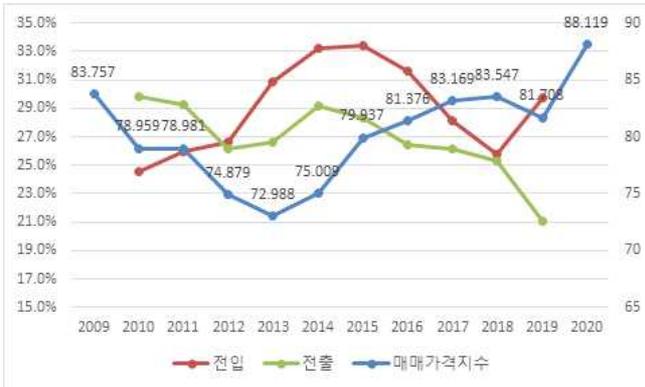
IV. 시사점

GYRI

-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고양시 인구증가는 인구의 양(positive)의 순이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인구수와 인구구성의 함수이므로 고양시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수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연령별 인구이동 결과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의 발전 및 쇠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므로 생애주기별 이동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2010년에서 2019년의 기간 동안 사이 고양시 전입 및 전출 인구의 주된 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요인 등으로 나타나 주거와 주택, 일자리 관련 정책 등이 고양시 인구이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 부문임을 시사하고 있음
- 30대 이상 연령층의 주된 전입 및 전출 이유는 전통적으로 주택요인에서 기인하며 그 비중은 전입의 경우 2015년 이후 그리고 전출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고양시 주택보급률은 2010년 94.8% 수준에서 2014년 97.2%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 93.3%로 하락한 이후 94%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9년에서 2020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2013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년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섰으며, 2015년 큰 폭 상승 이후 그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음
 - 같은 기간 고양시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2017년까지 상승한 이후 2018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13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 주택요인과 인구이동 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동자의 자산, 소득, 자가소유 여부 등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나 동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추정은 다음과 같음
 - 2015년 이후 전입관련 주택요인의 비중 감소는 대체로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전반적인 감소와 고양시 주택 및 전세가격의 큰 폭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출관련 주택요인의 비중은 고양시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낮은 시기에는 매매가격 지수와 유사하게 변동하였으나 매매가격 지수가 높은 시기에는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가격이 전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전출에 비해 전입이 주택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가격은 전입과 전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4-1] 고양시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요인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그림 4-2] 고양시 주택전세가격지수 및 주택요인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https://www.reb.or.kr/>)
 주택요인(전입-전출):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국내이동 통계

- 직업요인은 20대 이상 50대 미만 연령층의 주된 전입 및 전출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2012년 이후 전입보다는 전출을 더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43만 명 수준에서 2019년 51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체 수는 2010년 4만 9천 606개에서 2019년 6만 9천 687개로 증가함
 -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양질의 사업체 수 및 동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음

<표 4-1> 고양시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2010년, 2019년) (단위: 개, 명, %)

연도	규모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전체 대비 비중
2010년	사업체수	137	10	9	5	0.32%
	종사자수	20,373	3,766	5,924	5,420	14.97%
2019년	사업체수	190	13	10	6	0.31%
	종사자수	30,075	4,806	6,795	9,799	15.38%

<출처> 고양시 통계연보(2017~2019)

- 직업요인은 20대와 30대의 가장 큰 전출 원인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의 경우 전출요인 작용 비중과 전입요인 작용 비중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구조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34호

발행일 2021.12.31
발행인 정원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PAGE 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